

‘과학기술인 명예의 전당’ 헌정 대상자 발표



이휘소

장기려

과학기술부와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은 ‘과학기술인 명예의 전당’ 2005년도 헌정 대상자로 이학 분야에

이휘소(李輝昭 1935.1.1~1977.6.16), 의학 분야에 장기려(張起呂 1911.10.5~1995.12.25), 선현 분야에 서호수(徐浩修 · 1736~ 1799) 등 3인을 선정하였다.

이휘소 박사는 소립자 물리학 발전에 끼친 세계적인 업적으로, 장기려 박사는 평생을 의학 발전과 의료 봉사에 헌신한 공로로, 서호수 선현은 조선 후기 천문역산 발전에 끼친 영향으로 헌정대상

자로 선정되었다.

이번 2005년도 과학기술인 명예의 전당 헌정사업은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주관으로 2005년 6월 14일 헌정대상후보자 추천 공고 후, 총 10인을 추천받아 12월16일 인물선정위원회에서 상기 3인을 헌정 대상자로 최종 선정하였다.

이번에 선정된 3인에 대해서는 2월 20일까지 서면 이의 제기 기간이 주어지며, 제기된 이의 사항에 대해서는 후보자심사위원회 및 인물선정위원회가 재심을 하며, 이의 제기가 없을 경우에는 헌정이 자동으로 확정된다.

정부는 지난 2002년도 이후 과학기술기본법 제31조(과학기술인 우대 등)에 의거하여 탁월한 과학기술 업적으로 국가발전과 국민 복지 향상에 기여한 과학기술인들을 선정해서 그 업적을 항구적으로 기리며 보존하는 ‘과학기술인 명예의 전당’ (국립서울과학기술관내 위치) 헌정사업을 해오고 있다.

현재 명예의 전당에는 총 16인의 과학선현 및 과학기술자가 헌정되어 있으며 이번 3인을 추가할 경우 총 19인이 헌정되는 것이다.

과학기술분야 연구회소관 출연(연) 일부조정

한의학연구원 소관변경 및 원자력연구소 연구회 편입 등

과학기술부(부총리 겸 장관 : 吳 明)는 과학기술분야 3개 연구회(기초-산업-공공) 기능의 특성화와 출연(연)간 협동·융합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산업기술연구회 소관 한국한의학연구원을 기초기술연구회로 이관하고, 원자력분야 전문연구기관인 한국원자력연구소를 연구회에 편입하기로 했다.

신규 미생물 박테리아발견 분야 한국 ‘세계 1위’ 달성

미생물 다양성 확보로 ‘유전체 보물지도’ 제작 기초 마련

과학기술부는 21C 프론티어연구개발사업인 ‘미생물유전체활용 기술개발사업단(단장 오태광)’이 출범 3년 만에 영국의 세계적 미생물학술지인 IJSEM 에 등록된 ‘2005년도 박테리아 신종’ 발표 건수에서 한국이 세계 1위의 성과를 달성함으로써 우리나라가 미생물 다양성 확보 분야의 기술 강국으로 부상하였다고 밝혔다.

사업단이 출범하기 전인 2002년 전까지는 박테리아 신종 발표 건수에서 우리 나라는 세계 10위권 밖이었으나 사업단 출범 후 ‘03

년 세계 4위, ‘04년 세계 2위의 성과를 올렸으며, 마침내 ‘05년 이 분야의 강국이었던 일본(59종 전체 11.9%), 미국(44종, 전체 8.9%), 중국(42종, 전체 8.5%), 독일(41종, 전체 8.3%) 등을 제치고 세계 1위 (전체 494종 중 68종, 전체 13.8%)의 연구 성과를 올려 사업단이 목표로 하는 ‘세계 4위권 미생물산업 강국의 실현’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원자력연구소 연구용원자로 ‘하나로’ 재가동

방사성 옥소 생산 재개로 갑상선 환자의 비용 부담 줄어듦 전망

국내 유일의 중성자 연구시설로 신소재 개발, 신약개발, 핵연료 개발과 함께 각종 산업 및 의료용 동위원소를 생산하는 한국원자력연구소 연구용원자로 ‘하나로’가 지난 1월 4일부터 재가동에 들어갔다. 연구용원자로 ‘하나로’는 지난해 6월 19일부터 자체 안전 점검 사항과 규제전문기관의 정기검사 지적·권고사항을 보완하고 테러에 대비한 보안문 교체작업 등을 위해 가동이 일시 중단됐었다.

한국원자력연구소는 최근 테러에 대비한 보안문 설치와 성능검사를 마치고, 규제전문기관의 정기검사에서 제기된 지적·권고 사

항에 대한 보완 작업을 마무리하여 '하나로'에 대한 안전성을 한층 강화하였다.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금년 상반기 설립된다

핵투명성 확보로 국제사회 신뢰제고 추진

핵물질의 군사적 전용을 방지하고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검증·확인하는 업무를 수행할 독립 전문기관인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이하 '통제기술원')이 설립된다. 과학기술부는 국가의 핵투명성을 높이고, 국제사회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통제기술원 설립을 골자로 하는 원자력법 개정법률안이 지난 12월 8일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통제기술원은 작년말 우리 나라의 과거 핵물질 실험이 국제사회의 이슈가 된 이후, 과학기술부가 국가차원에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설립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 핵물질 및 원자력관련 시설·장비에 대한 수출입통제업무, 테러 등의 외부 침입을 방지하는 방호업무, 핵물질의 이동을 감시하는 계량관리업무 등을 과학기술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게 된다.

‘HPC Asia 2007’ 한국 유치

고성능컴퓨팅 기반으로 아태 첨단R&D공동체구축 기대

미국, 일본, 중국 등 아시아·태평양 전역 슈퍼컴퓨팅 전문가들의 학술행사인 '제9회 HPC Asia 2007(High Performance Computing in Asia Pacific Region)'의 한국 개최가 결정됐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조영화 원장)은 지난 12월 3일 베이징에서 열린 'HPC Asia 운영위원회'에서 차기 '제9회 HPC Asia 2007'의 개최지가 한국으로 결정됐으며, 이 행사를 통해 고성능컴퓨팅을 기반으로 한 아·태지역 첨단R&D공동체 구축이 적극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HPC Asia'는 18개월마다 아시아·태평양 전역의 고성능컴퓨팅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첨단 고성능컴퓨팅에 관한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정보와 아이디어를 교환하는 국제 컨퍼런스로서, 미국에서 열리는 SC(Supercomputing), 유럽에서 열리는 ISC(International Supercomputer Conference)와 더불어 전세계 슈퍼컴퓨팅 분야 3대 학술행사 가운데 하나다. 'HPC Asia'는 1995년 타이완 개최를 시작으로 1997년 제2회 행사가 한국에서 개최됐으며, 다시 2007년에 제9회 행사가 한국에서 열리게 됐다.

'HPC Asia 2007'에서는 e-Science 환경을 통한 아·태지역 첨단R&D공동체 구축이 본격화되며, 구체적으로 쓰나미 등 자연재해

나 사스, 조류독감 등의 전염성 질환 그리고 천문과 항공우주 등 다국간 협업의 필요성이 큰 분야를 중심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과학대중화를 위해 뭉쳤다

한국과학문화재단, 대덕연구개발특구, KAIST 및 KBS 공동양해 각서 체결

한국과학문화재단(이사장 나도선), 대덕연구개발특구 기관장협의회(회장 조영화), 대덕연구개발특구 지원본부(이사장 박인철), 한국과학기술원(총장 로버트 러플린), 한국방송공사 대전총국장(김영신)은 2006년 1월 20일 한국방송공사(KBS) 대전총국에서 '과학대중화를 위한 업무제휴 협약서'를 체결하였다.

이번 양해 각서는 국민들에게 과학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 내고 효과적으로 과학기술의 발전 및 산업화를 홍보하기 위하여 과학기술 관련기관과 방송사가 힘을 합쳤다는데 의의가 크다. 또한 올해부터 KBS 대전총국이 과학프로그램을 전담으로 제작하여 전국 송출을 시작하는데 있어 과학기술계의 지원을 얻었다고 할 수 있다.

양해각서를 체결한 과학관련기관과 KBS는 앞으로 기관별 특성에 맞는 역할과 상호 협력을 통해 과학기술관련 전문지식과 신기술 등을 방송을 통해 알리도록 노력하며, 과학 프로그램의 기획 및 제작, 방송에 필요한 전문인력, 장비, 장소 등을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하였다.

‘기관 과학기술엠베서더’ 5개기관 지정

과학기술엠베서더(홍보대사)가 연구현장으로 학생그룹을 초대해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될 '기관 과학기술엠베서더' 5곳이 지난해 12월 22일 지정됐다.

기관 과학기술엠베서더 사업은 2004년말 학생대상 설문조사 결과 과학기술 관련연구소를 방문하여 함께 실험을 해보고 싶다는 의견이 많이 나오에 따라, 정부출연기관 및 대학 연구기관 중 과학기술 대중화 사업에 뜻이 있는 기관을 기관 과학기술엠베서더로 지정하고 해당기관에 맞는 탐방, 탐구형 워크시트 개발 및 학생들의 방문 프로그램을 추진하려는 것이다. 이번 기관지정은 2005년 3월 사업에 동참할 연구소와 대학을 모집한 결과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을 비롯하여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참여의사를 밝힘으로써 이루어졌다. 과학기술엠베서더 사업은 청소년들과 일반인들에게 과학기술을 전파하고 과학기술을 중시하는 사회문화를 조성하고자 과학기술부와 교육인적자원부가 후원하고 한국과학문화재단의

주관으로 2002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1천여 명의 과학기술인으로 구성된 과학기술엠베서더들이 각급학교, 기관, 아동복지시설, 과학축제행사장, 과학강연 방송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과학초청강연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 680회를 포함하여 약 1천400회의 과학기술 엠베서더 초청강연을 시행한바 있다.

전국 읍면동 생활과학교실 83개소 추가 개소

전국의 지역주민과 청소년들에게 과학기술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운영중인 '생활과학교실'이 전국 공고를 통해 지난달 중순 83개소가 추가 선정됐다.

'사이언스코리아 운동'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국 읍면동 생활과학교실 운영사업'은 한국과학문화재단(이사장 나도선)이 2004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지역 과학문화 확산사업이다. 재미있는 실험과 체험을 통해서 과학기술을 접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지역생활권에서 과학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정기적(주 1회)으로 진행하고 있다.

그 동안 중앙정부(과학기술부)의 지역 과학문화 확산 의지와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연결시켜 추진한 결과 이미 운영중인 353개 생활과학교실에 이어 지난달 중순 266개소의 운영 계획서를 접수, 심사를 통해 83개소의 생활과학교실을 추가 개소하게 됐다.

이번에 추가 선정된 생활과학교실은 운영 예산 중 약 35.7%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게 되어, 일부 지자체의 관심과 협조 부족에서 오는 운영상의 비효율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대덕특구육성에 6,600억원 투입, 매출 목표 12조원

제1회 연구개발특구위원회서 특구육성종합계획 확정

과학기술부는 지난해 11월 24일 제1회 연구개발특구위원회를 개최하고 연구개발특구육성종합계획(안)을 심의·확정했다.

이번에 확정된 '연구개발특구육성종합계획'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의 5개년 계획으로서 연구개발특구육성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대덕연구개발특구육성을 위한 구체적인 추진 방안과 개발 기본구상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대덕연구개발특구를 '국가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는 연구개발 견인형 글로벌 혁신클러스터로 도약 시킨다는 비전을 제시하고 2010년까지 특구의 연간 매출액 12조 원 달성, 첨단벤처기업 1천500개 입주를 성과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2005년말 기준 연간 매출액은 3조4천억 원이며, 첨단벤처기업

범부처 '줄기세포연구종합추진계획' 수립을 위한 관계부처 연석회의 개최



줄기세포연구지원계획 수립을 위한 연석회의의 장면

과학기술부는 지난 1월 18일 오전 줄기세포 연구종합 추진계획을 수립하

기 위한 관계부처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전문 기획연구를 통해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날 회의에는 과학기술부, 교육인적자원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줄기세포 관련 전문가 등 14명이 참석하여 세계적 수준의 줄기세포연구 기술이 사장되지 않도록 범부처적 종합계획을 수립하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향후 기획연구를 통해 외국의 동향분석과 국내 줄기세포연구의 현재 상태에 대한 진단은 물론 앞으로 추진해 나갈 연구 추진방향과 이를 뒷받침할 연구 인프라구축 방안 등도 함께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줄기세포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될 기획연구팀은 관련 학회, 단체, 대학, 연구계 등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금년 4월까지 종합추진계획(안)을 제시하게 되고,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범정부 '줄기세포연구종합추진계획(안)'을 과학기술관 계장관회의에 상정하여 확정시킨 후 2007년도 연구사업에 연계시켜 나갈 계획이다.

648개가 입주하고 있다. 이러한 목표달성을 위한 4대 중점추진과제로는 연구성과의 사업화 촉진, 벤처생태계 조성, 글로벌 경영환경 구축, 타지역과의 연계 및 성과확산 등을 제시하고 있다.

특구육성종합계획의 추진을 위해서는 계획기간 중(2006~2010) 총 6천600여억 원의 자금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 재원은 중앙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민간의 자본유치를 통해 조달할 계획이다. ㉓

정리 | 편집실